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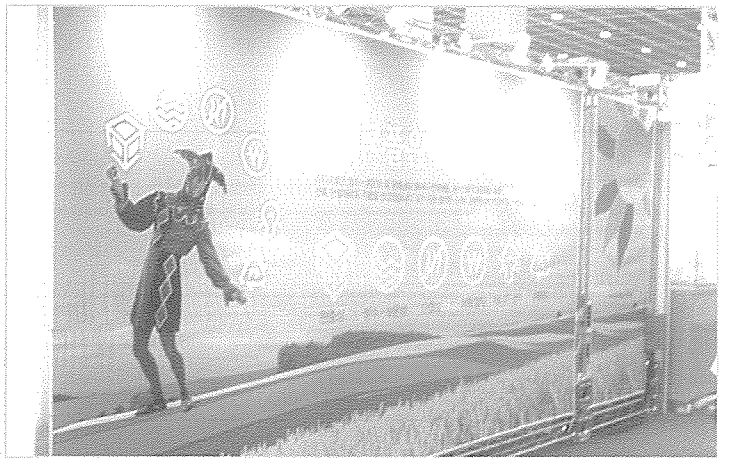
환경산업전시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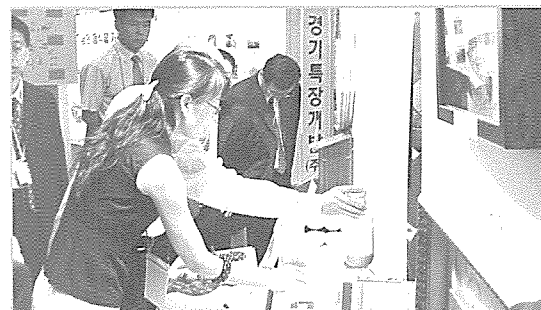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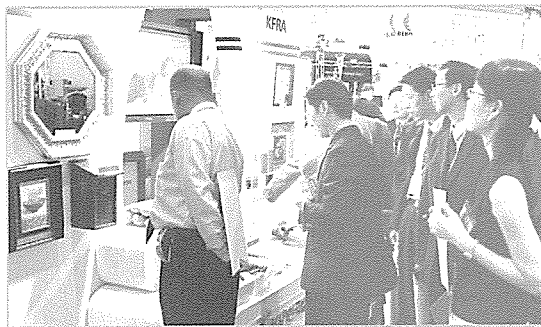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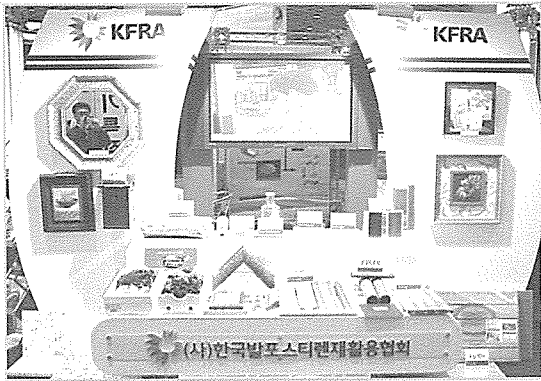
금년 6월 13일부터 16까지 4일간 COEX 태평양관에서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2006국제환경기술전이 개최되었다.

국내 172개 업체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21개국 81개 업체 총 25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회도 스티로폼에 대한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매년 환경관련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협회는 스티로폼 재활용 성과, 스티로폼의 경제성 등의 내용을 실사천으로 인쇄하여 칸막이로 활용하는 등 심플하고 효율적인 전시 공간을 배치하여 스티로폼 재활용 제품인 액자 및 욕실발판 등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전시하였으며, 전시회 주요 참관자인 소비자 및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스티로폼의 사용과 재활용이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환경부장관, 국내기관장, 개막식 참석 VIP 등 약1,800명의 관람자들이 협회 전시관 부스를 방문하였으며 협회는 환경사랑, 스티로폼 정보 등 1,220부를 배포하여 이들 관람객이 스티로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환경부장관 등 주요인사 방문

전시회 개막식 테이프커팅 행사에 참석한 이치범 환경부장관, 외국대사, 국내기관장 등은 협회부스에 방문하여 최주섭 부회장으로 부터 스티로폴 재활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YTN 협회 전시부스 취재

YTN, 환경방송 등의 언론사 기자들은 스티로폴이 재활용되어 액자 등 다양한 제품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협회 전시부스를 취재 보도 하였다.